

분과발표_문학/예술 1

『에어리얼 시편들』 (Ariel Poems)에 나타난 역설적 죽음

김정철 (고신대학교 교수)

엘리엇은 평생 “실재”(reality)의 세계를 추구한 시인이자 비평가이고 또한 철학자였다. 그가 일생동안 발표한 시나 평론, 또는 철학논문은 이 목표를 향해 살았던 시인의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Kimball). 그리고 그의 시는 스펜더(Spender)가 지적하듯이 『신곡』 (Divine Comedy)구조처럼 지옥에서 연옥으로,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나아가는 시의 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엘리엇이 자신의 개종 직후 발표한 시들에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색채가 초기시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이 당시 엘리엇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제작한 『에어리얼 시편들』¹⁾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워드(Ward)에 따르면 엘리엇은 『황무지』 (The Waste Land)가 출판되던 1922년부터 『성회수요일』 (Ash Wednesday)과 『마리나』 (Marina)가 쓰인 1930년 사이에 어떤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황무지』에 암시만 되어있고 거기에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황무지』의 “고뇌에 찬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 시 『황무지』 어디에도 안정이나 평안이 없는 데 그 이유는 거기에는 안정을 제공할 제의 의식도, 평안을 가져다 줄 기도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Ward 142). 실제로 『황무지』는 제의와 기도를 희미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 시기에 엘리엇은 계속해서 시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는 점차적으로 제의의식이나 종교적 인식이 결여된 문학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확신하게 된다(Ward 142).

엘리엇이 개종을 발표한 직후 창작한 『에어리얼 시편들』에는 『황무지』에 암시되던 것이 점점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본고에서 필자는 『에어리얼 시편들』에는 특히 죽음에 대한 동경 내지는 갈망이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죽음에 대한 갈망은 다른 아닌 초월적 세계에서의 재생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에어리얼(Ariel)은 셰익스피어 작품 『태풍』 (The tempest)에 등장하는 변덕스러운 요정을 지칭하는데 에어리얼은 캐리반(Caliban)과 함께 인간 본성의 두 요소, 즉 “영혼과 육체의 대조적인 양극성”을 나타낸다. 『에어리얼 시편들』에 속하는 4개의 시는 여러 각도에서 시간과 육체 그리고 이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자유 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을 그리고 있다(Murphy 51). 『에어리얼 시편들』에 나오는 4개의 시는 통일성 있게 쓰였고 이 4개의 시는 『마리나』에서 시적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영적 갈망은 단순하게 성취되지 않는데 이는 이 시가 엘리엇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시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머피

1) 엘리엇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Faber 출판사에서 성탄절 기념 카드를 제작하면서 카드에 새길 시로 엘리엇이 Ariel 시를 쓰게 된 것이다.

(Murphy)의 말처럼 이 시에서 엘리엇은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시인이 되는 시적 수단”을 발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엘리엇은 이 시를 자기 개인 경험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구한 인간 사상과 인간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51). 이것이 결국 엘리엇의 시와 신학 내지는 사상을 서로 상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결국 이 시는 “인간 본성의 사실들과 초자연적 실재”를 다루고 있다는 바텐하우스(Battenhouse)의 지적은 타견이다(158). 그러나 삶이 그러하듯이 이 시가 지향하는 실재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기쉬(Gish)는 이 시들이 어떤 초월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존재한다고 믿어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동의한다. 각각의 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발견했다기보다는 놓쳐버린 어떤 것에 대한 당혹감”이라는 기쉬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58). 결국 엘리엇은 “선견자”로서 전후의 황폐상을 토로하지만 그에게서 아직까지 어떤 해결책도 발견되지 않는다.

「박사들의 여행」 Journey of The Magi

‘환멸의 철학’은 “삶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죽음에 기대는 것”(Gish 58)이며, 이 철학은 엘리엇이 개종을 선언하던 해에 발표한 「박사들의 여행」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개종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돌아서는 일로서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개종의 어려움은 별을 따라 떠나면 길을 떠나는 여행의 혹독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시는 1622년 앤드류즈(Andrews) 주교가 그리스도 탄생 기념 설교 시 사용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시작한다.

오느라고 우리 참 추웠었지
 여행하기에, 이렇게 긴 여행을 하기엔
 하필 일년 중에서도 가장 나쁜 때 였지
 길은 깊고 날씨는 살을 에이고
 한 겨울이었지

'A cold coming we had of it,
 Just the worst time of the year
 For a journey, and such a long journey:
 The ways deep and the weather sharp,
 The very dead of winter.'

박사들의 기나긴 여정이 1년 중 가장 날씨가 혹독하던, 한 겨울철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여행의 혹독함과 박사들의 단호함을 암시하고 있다. 엘리엇은 여행의 혹독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의 내용을 성경 스토리의 전개형식과는 달리, 여행자가 귀국한 후 자신의 여정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단호하게 여행을 떠난 박사들은 곧 이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이 떠난 과거의 아늑하고 육욕적인 삶을 아쉬

워한다(Gish 60). 박사들의 여정은 앞을 향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와 반대로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떠나온 과거를 아쉬워한다.

There were times we regretted
 The summer palaces on slopes, the terraces,
 And the silken girls bringing sherbet.
 Then the camel men cursing and grumbling
 And running away, and wanting their liquor and women,
 And the night-fires going out, and the lack of shelters,
 And the cities hostile and the towns are unfriendly
 And the villages dirty and charging high prices.:
 A hard time we had of it.
 At the end we preferred to travel all night,
 Sleeping in snatches,

그럼 같은 여름 궁전 그리고 셰르벳을 나르던 실크 아가씨들, 술이 있고 여인이 있는 그 때에 비해 지금은 가는 곳마다 불친절하고 더럽고 바가지를 씌우고 심지어 이제 부터는 가끔씩 선잠을 자면서 이동해야하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야하는 것이다.

시에 빈번히 암시된 회의와 갈등은 개종 직후의 엘리엇 자신의 모습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Jain 232). 1932년 발표한 한 에세이집에서 엘리엇은 시극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극적으로 창작되는 것은 시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조화를 위한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 엘리엇은 자신의 주장처럼 조화의 세계를 향하는 자신의 투쟁을 재현하기 위하여 이 시의 박사들이 내뱉는 극적독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Jain 232).

이제 멀고 먼 나라에서 모든 어려운 조건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아이의 탄생을 찾아 나선 박사들의 목표는 “다 어리석은 짓”이고 긴 여정이 결국 무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애매함이 강하게 부각된다.

여러 목소리가 우리들 귀에 대고 노래하면서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이 전부 헛짓이라고.

with the voices singing in our ears, saying
 That this was all folly.

엘리엇은 당시 프랑스 시인 상-존 퍼스(saint-john Perse)의 『아나베이시스』(Anabasis)를 영어로 번역한 바 있는데 퍼스로부터 엘리엇이 받은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³⁾ 이 시는 희랍의 역사가 크세노폰이 사이러스를 위해 싸운 용병들의 행군내용을

2) 'John Ford', *Selected Essays*, p. 196.

3) 엘리엇은 뒷날 이 책을 번역한 이후 쓴 시에서 퍼스의 영향이 아마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Bush에서 인용)

포함시키고 있는데 퍼스는 자신의 시에서 군인들의 행군의 의미를 역사적인데서 보다는 영적인 데서 찾았다(Jain 233). 엘리엇의 말처럼 이 시에는 외부세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도 없다⁴⁾. 「박사들의 여행」에서도 역시 특정한 여정보다는 "내면을 향한 영적인 추구"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외부세계에 대한 지칭은 불확정적"이다(Jain, 233). 퍼스가 구체적인 디테일에 서사적 불확정성 그리고 주문적 리듬을 통하여 "의식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의 가장 가장자리에서 매우 암시적이고 신비적인 효과"를 이루려고 한 것처럼 엘리엇도 자신의 시에서 동일한 것을 추구하였다.⁵⁾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자체가 충분한 목적인데 반해서 역설적으로 엘리엇의 박사들은 그들이 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꺾가로 이 모든 것이 전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박사들이 여행 중에 느끼는 갖가지 감정은 "우리들은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감정의 심연"⁶⁾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박사들의 곤경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엘리엇은 자신의 장기인 역설의 수사학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박사들은 자신들이 "생명이 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보도록" 만들고 그에 반해 독자인 우리들은 이 사건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죽음"을 보도록 만들고 있다. 갈보리 언덕의 이미지인 세 그루의 나무가 그들의 뇌리에 등장하고 비록 늙었고 화자로부터 달아나기는 하지만 그 흰 말은 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타신 백말을 암시하고, 인방 위에 걸쳐져있는 포도나무 잎은 희생을 회상시켜주고 있다. 군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뽑던 처형장의 그 군인들을 암시하고 은전은 유다의 배신을 회상시켜주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가올 고뇌"를 제시하고 있다. 구약의 "유월절 속죄양을 계시록의 흰말"과 병치시킴으로써 "옛 시대와 재림을 성육신과 결부시키고 있다. 성육신 사건 이후 인간 세상의 모든 시간은 성육신 사건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고 이제 이 시는 그 성육신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다(Gish 62).

이윽고 새벽녘에 우리는 내려왔지 초목냄새 풍기는,
 설선 아래의, 물기 있는 온화한 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과 어둠을 때리는 물방앗간,
 그리고 나지막한 하늘에 나무 세 그루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늙은 백마가 초원에 경충경충 뛰며 사라졌었지,
 그 후 우리는 상인방 위에 포도잎새를 단 주막집으로 왔지,
 여섯 놋이 도어를 열어놓고 은화를 걸고 주사위노름을 하며
 발로는 텅 빈 포도주 가죽부대를 차고 있었지

Then at dawn we came down to a temperate valley,
 Wet, below the snowline, smelling of vegetation;

용, P.259). 그리고 마리나(Marina)를 제외한 3개의 시에 어휘나 이미지에서 퍼스의 영향이 나타나고 그의 모든 시에 이 시의 존재를 주목할 수 있다.

4) Jain에게서 재인용. P.233

5) Bush에서 재인용, P. 258n.

6) UPUC 148

With a running stream and a water-mill beating the darkness,
 And three trees on the low sky,
 And an old white horse galloped away in the meadow.
 Then we came to a tavern with vine-leaves over the lintel,
 Six hands at an open door dicing for pieces of silver,
 And feet kick the empty wine-skins.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분의 필연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떠나면 길을 걸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박사들에게 그 의미는 애매하고 어둡게 다가온다. 그 먼 길을 걸어온 목적이 점점 애매해지고 목적지에 도착할지도 불확실하고 또한 거기에 어떤 성취감도 없다. 예수의 탄생을 보러 출발한 여정이지만 탄생은 강조되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어 우리는 계속 나아가
 저녁에 바로 정각에 도착하여
 그곳을 찾아냈어; 그게 (당신이 말하겠지); 만족스러웠다고.

But there was no information, and so we continued
 And arrived at evening, not a moment too soon
 Finding the place; it was (you may say) satisfactory.

여기서 독자들은 엘리엇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신적 사건이자 초자연적 주제를 일상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Johnson 70). 이 시와 대비되는 『게런천』(Gerontion)은 비록 거부된 역사관점에서 쓰였지만 도리어 그 텍스트 내에는 강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역설적으로 그와 대조되게 이 시 「박사들의 여행」에서는 명징한 그리스도 사건이 도리어 일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엘리엇의 서술적 역설이 여실히 나타난다. 신앙의 부재를 다루는 시에서는 강렬한 신앙적 이미지가 등장하고 그 대신 제목에서부터 신앙을 표방하는 이 시에서는 도리어 신앙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형이상학과 시인의 한 사람인 존 단(John Donne)의 역설적 기법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⁷⁾.

시는 이야기를 할 듯 보이지만 역설적인 것은 시가 진행될수록 텍스트는 가상적 여행의 표면 위로 헤멜 뿐이고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이야기 대신 도리어 비인격적인 요소들만 나열되고 결국 신적 사건의 그 자리에 도착하지만 실제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무 실제 없이 ‘추상화’되어버린다(Johnson 68). 이 시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것은 탄생과 죽음이고 결국 이 시는 시인의 개종이후의 작품으로서 텍스트는 기독교의 신적 탄생을 발견하려는 강렬한 추구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도리어 “죽음이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Johnson 70).

7) 이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저 “존 단의 시 ‘Canonization’에 나타난 역설”이라는 논문을 참고할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기억하기엔, 오래 전 일이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명심 하라
 이것을, 명심하라
 이것을, 우리가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
 탄생이었던가 죽음이었던가?

탄생이 있었지, 분명히,
 우리는 증거가 있고 전혀 의심치 않아,
 나는 탄생과 죽음을 보았어,
 나는 또 한번 죽었으면 싶구나

All this was a long time ago, I remember,
 And I would do it again, but set down
 This set down
 This: were we led all that way for
 Birth or Death?

The very dead of winter
 ... were we led all that way for / Birth or Death?
 There was a birth
 I should be glad of another death.

위의 시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탄생보다 더 많이 등장함으로써 결국 이 시는 “죽음에의 욕망”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이 시가 다루는 배경인 기독교 기원에 대한 “어떠한 문화적, 영적, 또는 종교적 의미”도 제시하지 않는다. 영적 사랑(spiritual eros)에 대한 표현을 기대하는 독자의 기대는 시적 자아가 느끼는 영적 죽음(spiritual thanatos)으로 구성된 예술적 결론과 충돌한다: “I should be glad of another death”. 이 죽음-소원은 『황무지』 서두에 등장하는 쿠마 무녀의 소원과 연결되고 엘리엇의 또 다른 시 「엘리엇씨의 주일아침 예배」(Mr. Eliot's Sunday Morning Service)가 교회가 복음 메시지를 세속화하는 것에 반항하는 이 시의 분위기 속에서 “불신자의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시 「박사들의 여행」은 신적 현현을 세속화시킴으로써 “신자의 불신양”을 표현하고 있다는 존슨의 말은 타견이다(Johnson 70-71). 이리하여 『게런천』 Gerontion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엘리엇이 탄생과 죽음을 동일시함으로써 패러다임의 한 축인 탄생이 취소되고 결국 “나는 탄생과 죽음을 보았다 / 그러나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다”는 표현을 통해 이 둘이 다르지 않음을 암시함으로써 이 차이의 생략은 “감각의 극단적 생략”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의미론적 림보”를 구성한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하듯이 패러다임적인 대치어들의 차이를 허무는 일을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다는 존슨의 말은 상당히 정확하다(Johnson 71).

이 시에는 엘리엇 시에 흔히 등장하는 영적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부정적

길'(Negative Way)로서의 육체적 죽음과 일상적인 죽음 사이에 어떤 차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앤드류즈의 설교에 등장하는 박사들의 여정의 끝은 아기 예수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목적에 이르지만 엘리엇은 다시 한번 의미를 뒤집어 변형시킴으로써 안식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감”을 제시한다. 엘리엇은 “옛 신앙을 부정하면서도 결코 성육신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인한 소외감, 그리고 죽음을 통한 편안을 갈망”하는 박사들의 마음 상태를 제시한다. 이 소외감은 심지어 자신과 시인 간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만들고 있다(Jain 232).

우리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탄생과 죽음을 보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그 탄생은
우리에게는 힘들고 쓰렸다. 그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처럼,
우리는 우리 처소로 돌아갔다. 이 왕국들로,
그러나 더 이상은 이곳에서 편하지 않다, 이 옛 세대에서는
자신들의 신들에게 매달려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죽음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We had evidence and no doubt, I had seen birth and death,
But had thought they were different; the Birth was
Hard and bitter agony for us, like Death, our death.
We returned to our places, these Kingdoms,
But no longer at ease here, in the old dispensation,
With an alien people clutching their gods,
I should be glad of another death.

결국 「박사들의 여행」은 원 텍스트의 내용을 비틀어 제목과는 달리 신앙인의 불신앙을 토로하는 시로서 결국 생명을 찾아가는 “신앙인”의 여정이 죽음을 향하고 있음을 암사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시므온을 위한 노래」 (A Song for Simeon)

『에어리얼 시편들』의 첫 두 부분을 출판하고 난 다음 1928년 9월 24일 이 시가 출판된다. 그리고 이어서 그해 늦은 가을 엘리엇은 『에어리얼 시편들』 3부인 "som de l'escalina"를 출판한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출판된 이 두 시는 주제 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 팀머만(Timmerman)은 이 시의 늙은 화자를 “영적 여정에서 성자의 계단을 넘어간 자”(one beyond 'the saint' stir' of spiritual journeying)로 규정한다. 동일하게 이 시에 “계단 은유”(sta'ir metaphor)가 등장하여 정교하게 구조된 영혼의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다. 팀머만이 잘 지적했듯이 이 시는 이 구조를 통하여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순열”(spiritual permutation)을 추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17). 달리 말하자면 이 시에

묘사된 시므온의 영적인 과정은 시인 엘리엇의 인생여정과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

늙은 시몬이 생시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경 예언대로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nunc dimittis”를 노래한다. 따라서 이 시는 의당 시몬의 노래가 되어야하지만 엘리엇은 이 시 제목을 「시므온을 위한 노래」로 변형시킴으로써 엘리엇은 우리에게 “서사와 역사의 간격”(narrative and historical distance)을 느끼게 만든다(Timmerman 117). 제인(Jin) 역시 “시인과 인물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시므온이 자신이 순교와 최종적 비전에서 배제됨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나듯이 동일시의 순간도 있다”고 정확히 지적한다. 결국 시므온의 영적 위기를 극화함으로써 엘리엇은 자기 자신의 회의와 갈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237).

시므온이 자신이 예견하는 미래 일로 인해 슬픔을 표출하는 데 엘리엇의 시에서 성경의 시므온은 황무지의 현대 거주인 들로 변형된다. 시므온의 역사적인 자리는 옛날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현대 구도자가 서있는 자리이기도 하다(Timmerman 120). 이제 이 고난의 행렬에 엘리엇도 포함되어 이 시의 밑바닥에는 엘리엇의 지나온 과거가 묻어있다.

주여, 로마의 하야신스가 그릇에 피어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해는 눈 언덕 옆을 기어갑니다.
완고한 계절은 멈추어 서있고
내 생명은 죽음의 바람을 기다리며 가볍습니다.
내 손등은 깃털처럼,
햇살 가운데 먼지 그리고 모서리들 속의 추억은
죽은 대지를 향하는 차가운 바람을 기다립니다.

Lord, the Roman hyacinths are blooming in bowls and
The winter sun creeps by the snow hills;
The stubborn season has made stand,
My life is light, waiting for the death wind,
Like a feather on the back of my hand,
Dust in sunlight and memory in corners
Wait for the wind that chills towards the dead land.

로마의 하야신스는 「황무지」에 등장하는 하야신스 소녀를 연상시키고 시므온은 “평안한 상태에 있는 어떤 게런첸”(a Gerontion now at peace)을 상기시킨다(Timmerman 120). 죽음과 재생의 고통을 암시하는 겨울과 봄의 회상이 「황무지」를 연상시키고 더 나아가 시므온은 게런첸처럼 기억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인생 모서리마다 생의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므온은 엘리엇에 다름 아니다. 이 시 첫 부분에 묘사되는 죽음의 이미지는 황무지인 들의 이미지이자 개종 이전까지의 엘리엇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므온의 입은 제의적 기도를 토한다.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평화를 간

구한다.

Grant us thy peace,
 I have walked many years in this city,
 Kept faith and fast, provided for the poor,
 Have given and taken honour and ease,
 There went never any rejected from my door,
 Who shall remember my house, where shall live my
 Children's children
 When the time of sorrow is come?
 They will take to the goat's path, and the fox's home,
 Fleeting from the foreign faces and the foreign swords.

율법 규정에 따라 금식과 기도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였다고 자신의 과거를 아뢰는 그는 동시에 자기 자식들이 구약 이스라엘처럼 낯선 얼굴들과 칼을 피하여 언덕으로 달아날 환란의 날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 패망이후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놀게” 될 것이다.⁸⁾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환란과 슬픔의 때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다시 미래의 종말과 지나간 이스라엘의 종말은 하나의 사건으로 포개진다. 그는 이제 이 환란 날을 대비하여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신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

결박과 징벌 그리고 통곡 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베푸소서.
 황폐한 산의 처소들 전에
 어머니들의 슬픔의 어떤 시간 전에
 이제 죽은 자들의 출생 시기에,
 그 아이, 여전히 말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들려지지 않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베푸소서
 80살이나 되어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자에게

Before the time of cords and scourges and lamentation
 Grant us thy peace.
 Before the stations of the mountain of desolation,
 Before the certain hour of maternal sorrow,
 Now at this birth season of decease,
 Let the Infant, the still unspeaking and unspoken Word,
 Grant Israel's consolation
 To one who has eighty years and no tomorrow.

8)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이제 시인은 결박과 징벌 그리고 통곡의 시기인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평화를 간구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지는 극적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변형된다(Timmerman 121).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빌라도의 징벌”과 예루살렘을 벗어나 처형장으로 향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오던 “여인들의 슬픔과 통곡”(Southam 124), 그리고 십자가 처형장, 운명하시던 제9시 그리고 갑보리를 가리키는 멸망의 산 전부는 십자가 처형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더욱 구체화한다.

「시므온을 위한 노래」에서 죽음이 주도하는 ‘환멸의 철학’은 이제 엘리엇의 가장 난해한 주제인 성육신과 만나면서 모든 의미와 가치는 한 가지 점을 행하여 나아간다(Gish 58-9). 「박사들의 여행」에서처럼 이 두 사건, 곧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은 여기서도 포개진다. 이와 동시에 “시간과 영원”이 포개진다.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은 결합된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되어 시간을 구속하고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식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킨다(Timmerman 121).

다가올 십자가 처형 사건을 내다보면서 시므온은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 평화를 간구한다.

According to thy word,
They shall praise Thee and suffer in every generation
With glory and derision
Light upon light, mounting the saints' stair,
Not for me the martyrdom, the ecstasy of thought and
Prayer
Not for me the ultimate vision,
Grant me thy peace.
(And a sword shall pierce thy heart,
Thine also)

성육신의 실체인 아기를 안고 그 실체 안에서 미래에 벌어질 놀라운 사건들을 동시에 보는 시므온에게는 그런 엄청난 순교와 최종적 비전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는 다가오지 않기를 간구한다.

I am tired with my own life and the lives of those after me,
I am dying in my own death and the deaths of those after me,
Let thy servant depart,
Having seen thy salvation.

2연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낫낫이 폼아보던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가 엄청난 미래의 비전 앞에서 단지 무의미한 삶이었음을 고백한다. 결국 자신의 삶이나 범인의 삶이나 진배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지친 삶을 회고하는 시므온은 이제 성육신의 실체를

보았으니 자신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결국 기쉬의 말처럼 「박사들의 여행」이나 이 시 「시므온을 위한 노래」는 “성육신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묘사하는 시로 보아 무방하다(Gish 59). 결국 자신이 “과거에 믿던 신앙을 부정함으로써 느끼는 소외감과 성육신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결국 죽음을 통해 이런 곤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제인의 말은 타견이다(Jain 232).

「마리나」 (Marina)

전술한 바처럼 「에어리얼 시편들」의 이전 3개의 시와 「마리나」는 상이하다. 「에어리얼 시편들」이 하나의 시적 연재물이라면 「마리나」는 이 패턴을 깨뜨리고 있다. 「에어리얼 시편들」의 이전 3개 시는 “탄생과 죽음 사이의 갈등을 공통의 주제로 하여 이의 점진적 발전”을 다루고 있지만 「마리나」는 이전 시들로부터 “수 마일이나 격리”된 것처럼 보인다(Murphy 301). 극적 독백 형식을 사용하여 시를 전개해 나가는 이전 3개의 시와는 달리 「마리나」는 주인공 격인 펠리클레스(Pericles)의 독백으로 전개된다.

시의 제목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펠리클레스」(Pericles)를 연상시키는데 엘리엇 스스로 최고의 인식 장면이라고 칭찬한 이 장면은 ‘극작품을 초월한 가장 완벽한 한 가지 예’(a perfect example of the ‘ultra-dramatic’)이고,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 하는 극적인 행동”이다(Southam 127). 엘리엇은 셰익스피어의 후기 작품들 안에서 일상 경험에서 느끼는 정서와는 다른 차원의 정서 즉, “일상을 초월한 정서와 감정의 세계”를 발견한다. 엘리엇에게 셰익스피어 작품은 “인간의 극적 행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행동을 들여다 본 작가의 작품”이다. 엘리엇이 “시극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실재의 차원으로 높이 옮겨진다. 하나의 숨겨진 신비한 실재의 패턴이 황동기념표(palimpsest)에서처럼 나타난다. 우리가 일상사에서 단지 드문 일별만을 보는 어떤 것이 들어난다”⁹⁾고 한 말은 이 시 마리나에 적확하게 일치한다.

「펠리클레스」 5막 4장의 인식장면을 엘리엇은 「마리나」의 “시적이고 주제적인 목적을 위해 모방”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시를 통하여 엘리엇은 독자로서 하여금 놀라움 가운데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는 이것이야 말로 “어떤 중요한 의미에 대해 계시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다(Murphy 301). 시극 작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실재 세계로 고양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단지 희미하게 드러나는 어떤 은익된 그리고 신비한 패턴의 실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리나」에서 엘리엇은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새로운 차원의 실재 모습을 전달하는 매개물로 만들고 있다(Jain 242). 엘리엇은 이 시에서 셰익스피어의 극작품과 동일하게 꿈과 실재 그리고 악몽이 서로 포개지도록 만들고 있다(Murphy 302). 엘리엇은 펠리클레스를 텅 빈 사람들이 거주하는 황혼의 왕국에 거주하게 만들고, 「계련천」이 거하는 “깨어있고 잠자는 사이의 상태”, 그리고 「애니물라」(Animula)에 나오는 “있거나 있는 것 같은 것 사이의 영역”에 위치시키고 있다(Murphy 302).

9). Bush 에 재. A Study in Character and Style, pp. 165-66.

모든 가능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페리클레스로 하여금 “그가 추구하는 진리는 그가 보는 실재 그것이라는 단일한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딸 마리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결국 그로 하여금 “실재인 그 하나의 실재”(the one reality that is real)로 인도하고 그것은 “바로 거기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the one right there before his eyes)이다. 그는 자기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자기 딸 일수도 있다는 미칠 듯한 가능성에 혼란스러워 하지만 마리아로서는 단지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한 마음 밖에 없다.

불확실한 질문을 한 다음 페리클레스가 그 질문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려고 마음먹자 이미지들이 돌아온다. 이 와중에 비실재로 변형되고 다시 은혜로 인해 붕괴되는 것은 “딸이 아니라 죽음”이다(Murphy 302). 결국 이 시 「마리아」를 통하여 『에어리얼 시편들』에 중요 모티브로 등장하던 죽음은 초극되고 초월된다.

비실재가 되고
이 은혜의 붕괴되고

become unsubstantial
by this grace dissolved

그가 죽음이라고 명명한 것들은 “이 세상에 대한 탐욕적 추구의 표지”였다. 페리클레스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선다. 딸이 없을 때에는 세상과 그 모든 허영이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경우에서도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딸의 죽음 소식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여기”라는 근시안에서 해방되자 서서히 시의 주인공 페리클레스는 “저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저기 있는 것, 자신의 딸이 된다”(what is there become just that - what is there, is daughter)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세상을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신의 결단이 사랑을 상실한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고통에서부터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Murphy 302).

이 얼굴은 무엇인가, 덜 분명하고 더 분명한
팔의 맥박, 덜 강하고 더 강한 -
받은 것인가, 빌려준 것인가? 별들보다 더 멀고 그 눈보다 더
가까운

what is this face, less clear and clearer
The pulse in the arm, less strong and stronger -
Given or lent? more distant than stars and nearer than the
eye

인식의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실체의 모습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덜 분명하다가

더 분명해지고 강하지 않다가 더 강해지는 실제의 모습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주신 것인가 아니면 빌려주신 것인가”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경 이사야 9장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에서 근원된 것으로 제인이 이 시의 “기독교적인 해석”을 주장한 것은 매우 적합하다(Jain 245). 이리하여 쉽게 포착되지 않는 마리나의 모습에는 다시 영적인 의미가 덮여진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딸 마리나의 이 형태, 마리나의 생명은 자신을 초월한 세계에 살고 있기에 자신은 이 실재를 손에 잡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 워드는 이 시가 “마리나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초월”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표현이 마리나라고 정확히 주장하고 있다(Ward 164).

이 자태, 이 얼굴, 이 생명
 나를 초월한 시간 세계 속에 살기위해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위해 내 목숨을, 말 없는 그것을 위해 내 말을 버리게 하소서,
 깨어난, 벌려진 입술, 이 소망, 이 새 선박을 위해

This form, this face, this life
 Living to live in a world of time beyond me; let me
 Resign my life for this life, my speech for that unspoken,
 The awakened, lips parted, the hope, the new ships.

낡은 선박에 비유되던 자신이 이제 눈앞의 딸을 마주하고 나서 그 딸과의 영속적인 삶을 위하여 죽음을 희구한다. 그러나 이제 그가 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닌 초월적 세계에서의 재생을 위한 죽음이다. 달리 말하면 초월을 향한 자기소거(self-abnegation)로서의 죽음이다. 『에어리얼 시편들』의 전체 시에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환멸의 철학”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결합하여 시의 의미는 신학적이 되고 신학은 결국 엘리엇에게서 시로 나타난다. 시인 자신의 삶이 그러했듯이¹⁰⁾ 엘리엇의 모든 시에서 긍정은 그리 쉽지 않다(Maxwell 191). 박사들에게 재생이 “어렵고 힘든 고뇌”였듯이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최종 비전’이 거부되고 애니몰라 아이의 순진함이 타락한 세상에 희생물이듯이 『에어리얼 시편들』의 대단원인 「마리나」에서도 극적인 인식의 순간은 다시 이어진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극적인 순간에 페리클레스는 자기 딸을 향하여 “너를 낳은 그를 낳은 너”(Thou that beget' st him that did thee beget"¹¹⁾라고 절규한다.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딸을 낳았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딸로 인해 자신이 새로이 태어난 것이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요한 1:15)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pre-existence)가 곧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고 설파한 요한처럼 자기가 낳은 딸이 도리어 자신을 낳았다는 말을 통해 그는 영적 재생에 이른다. 결국 다시 살아 돌아온 딸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페리클레스는 영적인 재생에 이르는 것이다.

10) 엘리엇 (Acroyd, Peter, p. 에인)

11) Shakespeare, Pericles V. I

이제 딸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재생한 페리클레스에게 있어서 이 사랑 앞에서 프롤로그에 나오는 페렌스(Ference)의 “무엇”(What)이라는 절규는 페리클레스의 환희로 변형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인이 딸 마리나를 페리클레스의 “영적 재생의 매개물”로 보면서 “기독교적 해석”(Jain 241-245)을 주장한 것이나 윌슨 나이트(Wilson Knight)가 “재생의 주제”를 이야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윌슨 나이트는 페리클레스를 분석하면서 “페리클레스 신화가... 그 신비적 진리 즉, 그리스도의 광야 유혹, 비극적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knight 24-30).

마리나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프롤로그에 나오는 헤큐리스 퓨렌스(Hercules Furens)의 극적 광기와 비극적 종말은 환희로 변형되고 이제 죽은 딸과의 극적인 조우의 현장에 딸 마리나를 부르는 티티새 소리가 들린다¹²⁾.

무슨 바다 무슨 해변들 무슨 화강암 섬들 내 목재를 향한
그리고 안개 속으로 티티새는 부르고
내 딸을

What seas what shores what granite islands towards my timbers
And woodthrush calling through the fog
My daughter

나가는 말

엘리엇의 생애 가운데 자신의 개종을 선언한 시기를 전후하여 발표한 시에서는 죽음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과거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초월적 삶을 추구하는 시인은 이제 『에어리얼 시편들』에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역사성을 제거하는 대신 이를 시로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시를 쓰고 있다. 『에어리얼 시편들』의 전체 시에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환멸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결합하여 시의 의미는 신학적이 되고 신학은 결국 엘리엇에게서 시로 나타난다. 박사들에게 재생이 어렵고 힘든 고뇌였듯이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최종 비전’이 거부되고 애니몰라 아이의 순진함이 타락한 세상에 희생물이듯이 『에어리얼 시편들』의 대단원인 「마리나」에서도 초월적 실재에 대한 인식의 순간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된다.

이런 맥락에서 「박사들의 여행」은 원 텍스트의 내용을 비틀어 제목과는 달리 신앙인의 불신앙을 토로하는 시로서 결국 생명을 찾아가는 “신앙인”의 여정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 「시므온을 위한 노래」에서는 두 사건, 곧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이 포개지고 이와 동시에 “시간과 영원”이 포개진다.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은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되어 시간을 구속하고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인식능력을 완

12) Jain은 프롤로그와 관련지어 계속적으로 Marina의 양면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엘리엇은 프롤로그의 내용을 시의 마지막에서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전히 변형시킨다.

이런 시인의 창작은 「마리나」에서 그 절정에 이르러 죽은 줄 알았던 딸과의 조우는 최고의 인식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고 딸의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는 영적으로 재생하고 드디어 영적 실재와 조우하게 된다. 죽음을 통한 극적인 재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조우 현장에 또 다시 안개 속에서 딸 마리나를 부르는 티티새의 노래소리가 아련히 들려온다.

참고문헌

- Bush, Ronald. *T. S. Eliot: A Study in Character and sty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Gish, Nancy K. *Time in the Poetry of T. S. Eliot: A Study in Structure and Theme*. New Jersey: Barnes & Noble Books, 1981.
- Jain, Manju. *A Critical Reading of the Selected Poems of T. S. Elio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Johnson, Anthony L. "T. S. Eliot's *Gerontion* and *the Journey of the Magi*" in *Bloom's Modern Critical Views: T. S. Eliot--New Edition*. New York: nfobase Publishing, 2011. 61-78.
- Kimball, Roger. "A Craving for Reality: T. S. Eliot Today". *New Criterion*. 182(1999).
- Lewler, Justus George. *The Christian Image: Studies in Religious Art and Poetry*. Pittsburgh Duquesne Univ. Press, 1966.
- Maxwell, D. E. S. "The Cultivation of Christmas Trees". Braybrooke, Neville. *T. S. Eliot: A Symposium for His Seventieth Birthday*. New York: Farrar, Straus & Cudahy, 1938. 190-92
- Murphy, Russell Elliott. *Critical Companion to T. S. Eliot: A Literary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2007.
- Southam, B. C. *A Student Guide to The Selected Poems of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4.
- Timmerman, John H. *T. S. Eliot's Ariel Poems: The Poetics of Recovery*.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94.
- Wright, T. R. *Theology and Literature*. Cambridge: Basil Blackwell Ltd, 1989.